

섬유제지업계, ‘2050 탄소중립’ 첫걸음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(2021. 03. 25.)



섬유·제지업계는 ‘2050 탄소중립’ 실현을 위한 민·관 소통창구인 「섬유·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」를 발족하고, “섬유·제지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”을 발표하였다.

❖ 추진배경

-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, 우리 정부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’ 발표(‘20.12)
- * 온실가스 배출량(‘18년, 비중) : 섬유 6.1백만톤(1.5%), 제지 5.5백만톤(1.4%)
- 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,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애로·건의사항 등 적극적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 필요

❖ 회의 내용

- (섬유산업연합회) 섬유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소비가 많은 화학섬유분야에서 폐열 회수·재활용을 통해 에너지사용을 절감하고, 염색·가공분야에서 디지털염색 기술개발 및 보급·확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‘섬유산업 탄소중립 추진방안’을 발표하였다.

* ‘18년 섬유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6.1백만톤(국가 전체배출량의 0.9%, 산업부문의 1.5%)

- (탄소산업진흥원) 에너지 절감형 제조공정 개발 및 재생 탄소섬유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하였다.
- (산업부 산업정책실) “민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‘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*’를 중점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하며,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당부하였다.
- * ❶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, ❷ 업종별 민관 협의체 구성·운영, ❸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 제정, ❹ 대규모 R&D사업 추진, ❺ 세제·금융·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방안 마련
- 또한, “섬유·제지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, 제조공정 개선 및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제품 연구개발 등에 집중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